

서양음식의 외식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나 영 아 · 윤 은 숙
서울보건전문대학 전통조리과

A Survey on the Dining out of Western Food in Seoul Area

Young-Ah Nha · Un-Sook Yoon
Dept. of Traditional Cuisine, Seoul Health Junior College,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surveyed by 192 male and 238 female eating-out behaviours about western food in Seoul.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The recognition degree about the western food was 14.2% in 「Know well」, 54.8% in 「Know somewhat」, 25.3% in 「Not know」 and was observed significance by sex, food expenses and dine-out expenses. The recognition degree about western food was observed more highly than expected and would be further more highly with westernized dietary culture.

The information of concern and knowledge about western food was taken by mass-communication, book, school education, etc. and the answer marked significance by sex, age, school career.

The majority of subjects had chosen Korean restaurants in dining-out and the western restaurants were favorable to twenties(20~29) and thirties(30~39). The frequency of western restaurants visits was 46% in 「1~3times/month」, 39% in 「several times/year」 and the answer of frequency had significance by age, food expenses, and dine-out expenses.

The choice of western A la carte menu restaurants was chicken restaurant(28%), cutlet restaurant(24%), hamburger R. (13%), pizza R. (19%), Spaghetti R. (9%).

Hamburger restaurants were favorable to twenties and the majority of pizza restaurant chosen were high level by monthly income.

Content to be improved in western food was 68% in 「proper taste in Korean」. Western cook should be improved properly in Korean tasting.

I. 서 론

한국은 최근 고도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생활 양식이 크게 변모되어 가고 있으며, 각

분야의 국제화의 경향과 외식산업의 발달 또한 식문화의 서구화 경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¹⁾에 의하면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외식이 빠르게 일반화되어가는 배경에는 소득증대 및 평준화, 소비패턴의 변화, 생활의 레저화, 도시화 진전, 젊은 연령층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주부의 시간가치 상승 등 많은 요인이 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에서 50년대부터 크게 성장하게 된 외식산업은 세계로 진출하여, 가까운 일본은 60년대부터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은 80년대에 들어와 '86아시아 게임과 '88올림픽을 치르게 된 것을 계기로 외국의 유명 브랜드와 상표 및 기술도입 계약을 맺음으로서 서울의 변화가 중심 곳곳에 개점이 촉진되어 점차 패스트푸드점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서구형 패스트푸드점이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것은 서구화된 생활양식과 더불어 한국에서의 서양음식의 발전성과도 관련된다.

과거 우리나라 서양요리 발전사를 보면, 일제 식민지때 일본식 서양요리를 통해, 그리고 해방이후 주둔한 미군부대의 영향으로 70년대 중반까지 미국식 요리가 서양요리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왔으며,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가공식품 또한 수입상품을 선호하는 일부 한국인들에게 서양음식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주었다. 그러나 미국식 요리가 서양요리의 기원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서양요리란 프랑스를 중심으로한 유럽의 요리라 정의하고 여기에 미국식 요리도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에서의 보다 질적인 서양요리의 발전은 호텔의 발전 즉 호텔내 레스토랑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제화의 경향은 80년대에 들어와 대형호텔의 다수건립을 촉진하였고, 구미의 유수한 호텔체인의 기술습득으로 인하여 서양조리가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호텔의 다수건립은 서양식 조리의 질적인 발전과 아울러 서양식 레스토랑의 양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최근들어 서양식 일품요리를 패스트푸드화 시키는 일품요리 전문 양식 레스토랑도 증가일로에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전통음식에 대한 식습관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 외식의 간편성과 레저화를 바라는 다수의 젊은 연령층은 외식산업의 발달과 함께 서양음식의 기호성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²⁾의 조사를 보면 패스트푸드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서양음식을 좋아하게 되고 외식횟수가 증가하는 등의 식생활 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패스트푸드의 영향력이 서양음식의 기호도를

증가시켰다고 볼 때, 한국에서의 패스트푸드의 과거 10년 발전사를 거처온 지금의 20대, 30대 젊은 연령층은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과는 서양음식에 대한 기호성이 많이 차이날 것으로 사료되어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허³⁾는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한 고객중 34.5%가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상이었다고 보고하였고(1985년 조사), 류⁴⁾도 패스트푸드점을 찾는 고객의 월평균 수입정도가 91만원 이상이 44.6%라고 보고하였으므로(1988년 조사), 서양식 레스토랑 중 비교적 값싸다고 인식되는 패스트푸드점의 고객들이 주로 고소득층이 많은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중급이상의 양식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고소득층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최근 몇년 사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많이 상승된 것을 감안하여 서양음식의 외식에 대한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월급수준의 정도가 중상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 대한 외식의 행동연구는 앞으로 서양식 레스토랑에서의 서양음식이 보다 질적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서울시내에 현존하는 5개 호텔의 조리사, 학교, 병원 등지에 근무하는 직장인, 산업체에 근무하며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서울보건전문대학 전통조리과 학생중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주로 의식을 많이하고 서양음식에 접할 기회가 많다고 판단되는 대상들을 택하여 조사하였으며, 대상 연령층은 2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조사기간은 1991년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총 5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된 설문지중 통계처리가 가능한 430부를 조사자료로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조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연구된 바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들은 조사대상자들을 성별, 연령별로

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of subjects

N(%)

Age Sex	Twenties	Thirties	Forties	Above Fifty	Total
Male	59 (13.7)	82 (19.1)	34 (7.9)	17 (4.0)	192 (44.7)
Female	96 (22.3)	76 (17.7)	53 (12.3)	13 (3.1)	238 (55.3)
Total	155 (36.0)	158 (36.7)	87 (20.2)	30 (7.1)	430 (100.0)

나누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항 6문항, 서양음식의 외식에 대한 행동조사 10문항, 서양식 레스토랑과 서양음식*에 관한 사항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3. 조사자료의 분석방법

본 조사자료의 처리와 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각 문항마다 결측치는 자료처리시 제외시켰다. 모든 사항에 대해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각 문항중 집단간의 유의성 검정은 응답한 빈도만을 자료로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조사대상자의 성, 연령별 분포도는 Table 1과 같다. 남성은 44.7%, 여성은 55.3%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6.0%, 30대가 36.7%, 40대가 20.32%, 50대 이상이 7.1%로 나타났다. Table 2는

Table 2. General background of subjects

Background	Number	Percent
Feed expenses (won / months)		
Below 200,000	79	18.9
200,000 ~ 300,000	87	20.8
300,000 ~ 400,000	124	29.7
400,000 ~ 500,000	64	15.3
Above 500,000	64	15.3
Total	418	100.0
Dine-out expenses (won / months)		
Below 50,000	143	34.3
50,000 ~ 100,000	125	30.0
100,000 ~ 150,000	101	24.2
150,000 ~ 200,000	17	4.1
Above 200,000	31	7.4
Total	417	100.0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식비, 월평균 외식비 정도를 나타낸 분포도이다. 월평균 식비는 30~40만원을 쓰고 있는 경우가 29.7%로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월평균 외식비는 15만원 이내로 쓰고 있는 경우가 총 88.5%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식습관과 음식의 기호성 형성에 대한 견해

본인의 식습관과 음식에 대한 기호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에 대한 견해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서는 별다른 유의차가 없었으며 연령의 집단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20~29세 연령에서는 본인자신(17.4%)과 자신의 친어머니(16.2%)가 식습관과 음식의 기호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 설문지에서 사용한 서양음식의 지칭범위는 프랑스를 중심으로한 구라파 각국 및 미국스타일의 음식을 통칭하여 정의하였고, 따라서 서양식 레스토랑의 지칭 범위도 고급 호텔의 양식 전문 레스토랑에서부터 중급 양식레스토랑, 스낵바, 간이패스트 푸드점 등 서양음식을 취급하는 모든 레스토랑의 범위를 포괄하여 사용하였다.

Table 3. Affecting person on the dietary pattern and choice of favorite food

N(%)

	Own self	Spouse	Mother	Step-Mother	Chef of Restaurant	Other	Total	
Sex								$\chi^2=3.54148$
Male	71(17.1)	48(11.6)	57(13.8)	2(0.5)	4(1.0)	1(0.2)	183(44.2)	D.F.=5
Female	88(21.3)	70(16.9)	67(16.2)	4(1.0)	2(0.5)		231(55.8)	NS
Total	159(38.4)	118(28.5)	124(30.0)	6(1.4)	6(1.4)	1(0.2)	414(100.0)	
Age								$\chi^2=78.33148$
20~29	72(17.4)	9(2.2)	67(16.2)	1(0.2)	2(0.5)		151(36.5)	D.F.=15
30~39	48(11.6)	55(13.3)	41(9.9)	3(0.7)	3(0.7)	1(0.2)	151(36.5)	p<0.001
40~49	26(6.3)	41(9.9)	13(3.1)	2(0.5)			82(19.8)	
50~	13(3.1)	13(3.1)	3(0.7)		1(0.2)		30(7.2)	
Total	159(38.4)	118(28.5)	124(30.0)	6(1.4)	6(1.4)	1(0.2)	414(100.0)	

NS : Not significant

있었으며, 30~39세 연령에서 보면 배우자(13.3%)와 자신의 친어머니(9.9%)가 본인(11.6%)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으며, 대부분 결혼생

활을 10년이상 지속해오고 있다고 판단되는 40~49세 연령에서는 배우자(9.9%)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다음으로는 본인(6.3%), 친어머니(3.1%)로 나타

Table 4. Desirable factor to whom charging diet

N(%)

	Cooking sanitation	Nutrition	Cooking method	Food preference	Other	Total	
Sex							$\chi^2=24.50168$
Male	29(7.2)	35(8.6)	23(5.7)	81(20.0)	14(3.5)	182(44.9)	D.F.=4
Female	42(10.4)	50(12.3)	60(14.8)	67(16.5)	4(1.0)	223(55.1)	p<0.001
Total	71(17.6)	85(20.9)	83(20.5)	148(36.5)	18(4.5)	405(100.0)	
Age							$\chi^2=15.95414$
20~29	27(6.7)	32(7.9)	21(5.2)	61(15.1)	5(1.2)	146(36.0)	D.F.=12
30~39	23(5.7)	30(7.4)	31(7.7)	53(13.1)	10(2.5)	147(36.3)	NS
40~49	12(3.0)	18(4.4)	25(6.2)	26(6.4)	2(0.5)	83(20.5)	
50~	9(2.2)	5(1.2)	6(1.5)	8(2.0)	1(0.2)	29(7.2)	
Total	71(17.6)	85(20.9)	83(20.6)	148(36.5)	18(4.4)	405(100.0)	
Food expenses(won /month)							$\chi^2=35.19611$
Below 200,000	13(3.3)	25(6.3)	6(1.5)	28(7.1)	2(0.5)	74(18.8)	D.F.=16
200,000~300,000	13(3.3)	19(4.8)	16(4.1)	28(7.1)	4(1.0)	80(20.3)	p<0.01
300,000~400,000	27(6.9)	18(4.6)	25(6.3)	45(11.4)	3(0.8)	118(29.9)	
400,000~500,000	3(0.8)	13(3.3)	19(4.8)	19(4.8)	6(1.5)	60(15.2)	
Above 500,000	13(3.3)	7(1.8)	16(4.1)	24(6.1)	2(0.5)	62(15.7)	
Total	69(17.5)	82(20.8)	82(20.8)	144(36.5)	17(4.3)	394(100.0)	

NS : Not significant

났으며, 5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주로 본인자신(3.1%)과 배우자(3.1%)에 의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서 볼 때 본인 자신 다음으로는 친어머니와 배우자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을 보면 각 가정에서의 주부의 역할 인식은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기호성을 고려한 식생활 담당자로서의 주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인의 식생활 담당자에게 바라는 점으로 위생적인 면, 영양성, 조리방법, 기호성에 대한 면을 살펴본 바 Table 4로 집계되었는데, 성별($P<0.001$)과 월 평균 식비($P<0.01$)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음식에 대해서 기호성을 고려해 줄 것을 가장 바라고 있는 점으로 나타났으며(36.5%), 성별로 보면 남성은 특히 기호성에 대한 고려가 20.0%로서 월등하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영양성에 대한 고려(8.6%)를 들었으나 여성은 음식의 기호성에는 16.5%, 조리방법의 개선에는 14.8%를 나타내, 여성은 남성보다 조리방법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겠다. 월평균 식비별로 보면 월 식비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양성과 기호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월 식비가 4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리방법과 기호성을 바라는 경향으

로 나타났다.

3. 서양음식에 대한 견해와 서양음식에 관한 정보원

1) 서양음식에 대한 인식

서양음식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Table 5에 서와 같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4.5%,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4.8%,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25.2%, '관심이 없다'가 5.6%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차를 보였다($P<0.001$).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월식비별로 보면 30~40만원대와 50만원 이상대에서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빈도수가 가장 많았다. 이⁵⁾ 등의 조사에서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도를 보면 '잘 알고 있다'가 20.9%, '조금 알고 있다'가 68.9%의 응답결과로 나왔는데, 전통음식의 인식도와 비교해 본 서양음식에 대한 인식도는 기대했던 수치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앞으로 식문화의 서구화가 진전될수록 서양음식에 대한 인식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음식에 비하여 서양음식이 좋다고 생각되는

Table 5. Recognition degree about western food

N(%)

	Know well	Know somewhat	Not know	Not concern	Total	
Sex						$\chi^2=20.49586$
Male	41(9.6)*	90(21.0)	45(10.5)	16(3.7)	192(44.8)	D.F.=3
Female	21(4.9)	145(33.8)	63(14.7)	8(1.9)	237(55.2)	p<0.001
Total	62(14.5)	235(54.8)	108(25.2)	24(5.6)	429(100.0)	
Food expenses(won/month)						
Below 200,000	6(1.4)	42(10.1)	22(5.3)	9(2.2)	79(18.9)	$\chi^2=22.73786$
200,000~300,000	10(2.4)	43(10.3)	32(7.7)	2(0.5)	87(20.9)	D.F.=12
300,000~400,000	19(4.6)*	71(17.0)*	27(6.5)	7(1.7)	124(29.7)	p<0.05
400,000~500,000	13(2.6)	31(7.4)	16(3.8)	4(1.0)	64(15.3)	
Above 500,000	11(2.6)	41(9.8)	9(2.2)	2(0.5)	63(15.1)	
Total	59(14.1)	228(54.7)	106(25.4)	24(5.8)	417(100.0)	

* : Observed frequency > Expected frequency

점에 대한 견해의 응답은 ‘간편성’에 대한 응답빈도가 2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맛의 기호성’, ‘장식·생상등의 조화성’순이었다.

과거에 비하여 서양음식의 기호도가 증가하는 이유로서는 ‘간편성’에 대한 응답수가 255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외식횟수의 증가’, ‘국민소득의 증가’, ‘문화교류의 신속성’, ‘매스컴의 무절제한 광고’등에 대한 이유로 응답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서양음식의 장점과 기호도의 증가이유가 fast food의 ‘간편성’으로 귀착되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음식은 서양음식보다 조리법 면에서 아직도 번거롭고 신속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전통음식에 대한 간편화도 앞으로 많이 연구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사료된다.

2) 서양음식에 관한 정보원

서양음식에 관한 관심과 지식을 얻게하는 정보원으로서는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을 통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책을 통하여, 학교교육 취미·흥미, 가정의 식습관, 요리학원, 세미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여성간에 유의차가 나타났는데,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가정의 식습관에서 정보를 얻는 편이 많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요리·음식에 관한 책들을 더 많이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은 학교교육을 통하여도 남성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도 고등학교 교과과정중 가정·가사 과목의 식생활교육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연령별로 보면(P(0.01) 20대와 30대 연령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하여서도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4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주로 매스컴과 책을 통하여 서양음식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도 약간의 유의차를 보였는데(P(0.05), 고등학교 이하의

Table 6. Information of concern and knowledge about western food

N(%)

	Book	School education	Mass communication	Home diet	C.I.S.* hobby	Interest	Other	Total	
Sex									$\chi^2=26.36571$
Male	39(10.8)	14(3.9)	56(15.5)	15(4.2)	4(1.1)	10(2.8)	9(2.5)	172(47.6)	D.F.=6
Female	64(17.7)	30(8.3)	57(15.8)	9(2.5)	10(2.8)	16(4.4)	28(7.8)	189(52.4)	p<0.001
Total	103(28.5)	44(12.2)	113(31.3)	24(6.6)	14(3.9)	26(7.2)	37(10.2)	361(100.0)	
Age									$\chi^2=34.57683$
20~29	36(10.0)	25(6.9)	40(11.1)	4(1.1)	3(0.8)	12(3.3)	11(3.0)	131(36.3)	D.F.=6
30~39	39(10.8)	15(4.2)	32(8.9)	10(2.8)	6(1.7)	12(3.3)	17(4.7)	131(36.3)	p<0.01
40~49	23(6.4)	2(0.6)	30(8.3)	6(1.7)	4(1.1)	1(0.3)	9(2.5)	75(20.8)	
Above 50	5(1.4)	2(0.6)	11(3.0)	4(1.1)	1(0.3)	1(0.3)		24(6.6)	
Total	103(28.5)	44(12.2)	113(31.3)	24(6.6)	14(3.9)	26(7.2)	37(10.2)	361(100.0)	
School career									$\chi^2=37.99824$
Public S.	1(0.3)		3(0.9)					4(1.2)	D.F.=24
Middle S.	1(0.3)							1(0.3)	p<0.05
High S.	41(11.9)	2(0.6)	44(12.8)	5(1.5)	4(1.2)	5(1.5)	12(3.5)	113(32.8)	
College	46(13.4)	36(10.5)	52(15.1)	17(4.9)	6(1.7)	16(4.7)	22(6.4)	195(56.7)	
Graduate	C.8(2.3)	5(1.5)	8(2.3)	2(0.6)	1(0.3)	1(1.5)	2(0.6)	31(9.0)	
Total	97(28.2)	43(12.5)	107(31.1)	24(7.0)	11(3.2)	26(7.6)	36(10.5)	344(100.0)	

C.I.S.: Cook institute seminar etc.

학력에서는 주로 책(11.9%)과 매스컴(12.8%)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이상의 학력에서는 책과 매스컴 외에도 학교교육, 가정에서, 취미나 흥미에서 등으로부터 서양음식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서양음식의 외식에 대한 행동

1) 외식으로 자주 선택하는 식당

외식으로 자주 선택하는 식당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Table 7과 같이 한국식 식당, 서양식 식당, 일본식 식당, 중국식 식당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P<0.01)과 월평균 식비별(P<0.0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서양식 레스토랑을 선택한 사람들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30대 젊은 연령층에서 40대이상의 연령층에 비하여 더 자주 찾는 경향을 나타냈고, 일본식당은 30대, 40대 연령층에서 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²⁾의 조사에서 보면 패스트 푸드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서양음식을 좋아하고 외식횟수가 증가하는 등의 식생활변화가 있다고 하였는데, 지난 10년간 패스트 푸드를 많이 이용해온 지금의 20대, 30대 연령층에서 서양식 레스토랑을 자주 찾는 결과는 서양음식에 대한 기호도가 증가된 연유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학력별로 보면 고등학교 학력층은 서양식 레스토랑을 찾는 빈도수에 비하여 한국식 레스토랑을 찾는 빈도가 월등히 높는데, 대학이상의 학력층에서는 비교적 서양식 레스토랑을 찾는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층인 경향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한국식당에 비하여 서양식 식당의 음식비가 비싸다고 예측할 수 있으며, 뒤에 나타난 조사에서 보면 서양식 레스토랑의 개선점 중 '음식의 질에 비하여 값이 비싸다'가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질적인 서양음식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적인 음식의 가격도 잘 조정되어야 하겠

Table 7. Choice of Restaurants

N(%)

	Korean R.	Western R.	Japanese R.	Chinese R.	Total	
Sex						$\chi^2=4.68364$
Male	138(32.2)	29(6.8)	12(2.8)	12(2.8)	191(44.5)	D.F. =3
Female	172(40.1)	48(11.2)	11(2.6)	7(1.6)	238(55.5)	NS
Total	310(72.3)	77(17.9)	23(5.4)	19(4.4)	429(100.0)	
Age						$\chi^2=25.11087$
20~29	110(25.6)	38(8.9)	2(0.5)	5(1.2)	155(36.1)	D.F. =9
30~39	116(27.0)	27(6.3)	8(1.9)	7(1.6)	158(36.8)	p<0.01
40~49	61(14.2)	11(2.6)	8(1.9)	6(1.4)	86(20.0)	
Above 50	23(5.4)	1(0.2)	5(1.2)	1(0.2)	30(7.0)	
Total	310(72.3)	77(17.9)	23(5.4)	19(4.4)	429(100.0)	
Food expensed(won /month)						$\chi^2=35.40285$
Below 200,000	66(15.8)	10(2.4)	1(0.2)	2(0.5)	79(18.9)	D.F. =12
200,000~300,000	58(13.9)	23(5.5)	1(0.2)	5(1.2)	87(20.9)	p<0.001
300,000~400,000	92(22.1)	20(4.8)	4(1.0)	8(1.9)	124(29.7)	
400,000~500,000	44(10.6)	12(2.9)	5(1.2)	3(0.7)	64(15.3)	
Above 500,000	41(9.8)	10(2.4)	11(2.6)	1(0.2)	63(15.1)	
Total	301(72.2)	75(18.0)	22(5.3)	19(4.6)	417(100.0)	

NS : Not significant

다. 월평균 식비별로 보면 20~40만원대에서는 한국식 식당을 제외한 외국음식의 식당중 서양식 식당과 중국식 식당을 더 자주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한국식 식당 다음으로 서양식 식당과 일본식 식당을 선택하였다. 5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주로 고연령층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외국음식중 일본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모든 연령층에서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한국음식에 대한 선택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는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서양음식에 대한 기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서양식 레스토랑을 찾는 빈도

서양식 레스토랑을 찾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Table 8로 집계 되었는데 '1달에 1~3회'가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으로는 '1년에 몇번'이었다. 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별, 월식비별, 월외식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별로 보면 20대(20~29세) 연령층에서 한달에 1~3회가 17.2%, 4~6회가 4.9%, 7회 이상이 4.0%로 서양식 레스토랑을 찾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30대(30~39세) 연령층에서는 '일년에 몇번정도'와 '한달에 1~3회'가 각각 16.7%와 16.9%로써 20대 연령층에 비하여 서양식 레스토랑을 찾는 빈도가 낮아졌으며 40대 연령층(40~49세), 50대 이상의 연령층에 비하여 서양식 레스토랑을 찾는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월식비에 따라서 보면, 20만원 이하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일년에 몇번'과 '한달에 1~3회' 찾는 빈도에 몰려 있는 반면, 월식비를 20~30만원 쓰는 경우에는 서양식 레스토랑을 찾는 빈도가 더 증가하였으

Table 8. Frequency of western restaurants visits

						N(%)
	Several times / year	1~3 times / month	4~6 times / month	Above 7 times / month	Total	
Age						
20~29	43(10.1)	73(17.2)	21(4.9)	17(4.0)	154(36.2)	$\chi^2=28.46501$ D.F.=9 p<0.001
30~39	71(16.7)	72(16.9)	12(2.8)	3(0.7)	158(37.2)	
40~49	36(8.5)	41(9.6)	6(1.4)	2(0.5)	85(20.0)	
Above 50	16(3.8)	9(2.1)	2(0.5)	1(0.2)	28(6.6)	
Total	166(39.1)	195(45.9)	41(9.6)	23(5.4)	425(100.0)	
Food expenses(won /month)						
Below 200,000	37(9.0)	40(9.7)	1(0.2)		78(18.9)	$\chi^2=42.85040$ D.F.=12 p<0.0000
200,000~300,000	40(9.7)	38(9.2)	4(1.0)	4(1.0)	86(20.8)	
300,000~400,000	44(10.7)	63(15.3)	9(2.2)	8(1.9)	124(30.0)	
400,000~500,000	24(5.8)	25(6.1)	9(2.2)	6(1.5)	64(15.5)	
Above 500,000	15(3.6)	26(6.3)	16(3.9)	4(1.0)	61(14.8)	
Total	160(38.7)	192(46.5)	39(9.4)	22(5.3)	413(100.0)	
Food expenses(won /month)						
Below 50,000	81(19.7)	52(12.6)	4(1.0)	4(1.0)	141(34.2)	$\chi^2=49.29551$ D.F.=12 p<0.001
50,000~100,000	40(9.7)	59(14.3)	16(3.9)	8(1.9)	123(29.9)	
100,000~150,000	27(6.6)	56(13.6)	12(2.9)	6(1.5)	101(24.5)	
150,000~200,000	4(1.0)	11(2.7)	2(0.5)		17(4.1)	
Above 200,000	6(1.5)	13(3.2)	6(1.5)	5(1.2)	30(7.3)	
Total	158(38.3)	191(46.4)	40(9.7)	23(5.6)	412(100.0)	

며,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이상 쓰는 경우로서 월식비가 증가할수록 서양식 레스토랑을 찾는 빈도가 더욱 증가함을 보여주었다(P=0.0000).

고소득층일수록 식생활비를 많이 지출한다고 보면, 고소득층일수록 서양식 레스토랑을 찾는 빈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외식비별로보면 월평균 외식비를 20만원 이상 쓰고 있는 경우에 서양식 레스토랑을 찾는 빈도가 많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월식비가 5만원~15만원인 경우에 서양식 레스토랑을 찾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P<0.001).

3) 양식 일품요리 전문점에 대한 기호도 조사

양식 일품요리 전문점에 대한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Table 9), 치킨(Chicken)전문점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컷렛전문점, 피자전문점, 햄버거 전문점, 스파게티 전문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유의차를 보였는데(P<0.01), 20대 연령(20~29세)에서는 컷렛, 치킨, 햄버거, 피자 레스토랑을 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30대

연령(30~39세)에서는 치킨, 피자, 컷렛 전문 레스토랑을 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고, 40대 연령(40~49세)에서는 주로 치킨, 컷렛 전문 레스토랑을 선택하였다. 햄버거 전문점에 대한 선택은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류⁴⁾의 조사에서 나온 젊은 연령층의 햄버거 전문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기호도가 높게 나온 결과와 일치하였다.

외식비별로 보면(P<0.01), 월평균 외식비를 10만원 이하로 쓰는 경우에는 치킨 전문점과 컷렛 전문점에 대한 선택빈도가 높았고, 10~15만원의 경우에는 치킨, 컷렛, 피자 전문점의 기호도를 보였으며, 월 외식비를 20만원 이상쓰는 경우에는 피자 전문점에 대한 선택빈도가 가장 높았다. 피자는 이탈리아 고유음식으로 비교적 한국인의 입맛에 어울리는 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요즘 TV광고에서도 선전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피자 전문점의 선택에 대한 월수입별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피자 전문점을 선택한 대상자(69명)들중 81.2%(56명)가 월수입이

Table 9. Choice of western A la carte menu restaurants

N(%)

	Pizza R.	Chicken R.	Hamburger R.	Cutlet R.	Spaghetti R.	Other	Total	
Sex								$\chi^2=4.94107$
Male	27(7.6)	53(14.9)	19(5.4)	36(10.1)	14(3.9)	12(3.4)	163(45.9)	D.F.=5
Female	42(11.8)	46(13.0)	26(7.3)	49(13.8)	17(4.8)	14(3.9)	192(54.1)	NS
Total	69(19.4)	99(27.9)	45(12.7)	85(23.9)	31(8.7)	26(7.3)	355(100.0)	
Age								$\chi^2=37.11088$
20~29	26(7.3)	34(9.6)	27(7.6)	41(11.5)	7(2.0)	2(0.6)	137(38.6)	D.F.=15
30~39	29(8.2)	34(9.6)	11(3.1)	24(6.8)	15(4.2)	14(3.9)	127(35.8)	p<0.01
40~49	7(2.0)	25(7.0)	5(1.4)	14(3.9)	8(2.3)	9(2.5)	68(19.2)	
Above 50	7(2.0)	6(1.7)	2(0.6)	6(1.7)	1(0.3)	1(0.3)	23(6.5)	
Total	69(19.4)	99(27.9)	45(12.7)	85(23.9)	31(8.7)	26(7.3)	355(100.0)	
Dine-out expenses(won / month)								$\chi^2=37.97369$
Below 50,000	15(4.4)	32(9.3)	14(4.1)	31(9.0)	5(1.5)	13(3.8)	110(32.0)	D.F.=20
50,000~100,000	21(6.1)	25(7.3)	17(4.9)	28(8.1)	10(2.9)	7(2.0)	108(31.4)	p<0.01
100,000~150,000	18(5.2)	29(8.4)	9(2.6)	21(6.1)	11(3.2)	2(0.6)	90(26.2)	
150,000~200,000	3(0.9)	3(0.9)	2(0.6)	3(0.9)		3(0.9)	14(4.1)	
Above 200,000	10(2.9)	6(1.7)	2(0.6)		4(1.2)		22(6.4)	
Total	67(19.5)	95(27.6)	44(12.8)	83(24.1)	30(8.7)	25(7.3)	344(100.0)	

NS : Not significant

100만원 이상되는 고소득층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5. 서양음식에 대한 개선점

서양음식에 대한 개선점의 항목으로 ‘한국인에 적합한 기호성 개발’과 ‘영양성 개발’, ‘조리법 개발’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 정도가 ‘기호성 개발’을 택하였고 22%정도가 ‘조리법 개발’을, 8%정도가 ‘영양성 개발’로 답하였다. 성별,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별다른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월평균 외식비에 따라서는 유의차를 보였다(P<0.05).

즉, ‘한국인에 적합한 조리법 개발’에 대한 항목에 대하여 외식비가 10~15만원인 응답자가 가장 많은 선택을 하였고, ‘한국인에 적합한 영양성 개발’에 대한 항목에 대하여는 외식비가 5~10만원인 대상자들이 가장 많은 선택 빈도를 보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볼 때 ‘한국인에게 적합한 기호성 개발’을 가장 으뜸

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서양음식의 조리사들이 한국인에게 적합한 맛을 개발해 내는데 부진했던 결과로 판단되며 앞으로 한국에 있는 양식조리사들이 한국에서 서양음식을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크나큰 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서양음식의 외식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서양음식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4.2%,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4.8%,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25.3%, ‘관심이 없다’가 5.7%로 나타났으며 성별(P<0.001), 월평균 식비(P<0.05), 월평균 외식비(P<0.01)에 따라 유의차를 보였다. 이⁵⁾ 등

Table 10. Content to be improved in western food

N(%)

	Proper taste in Korean	Proper nutrition in Korean	Proper cooking method in Korea	Other	Total	
Sex						$\chi^2=1.80697$
Male	128(30.5)	17(4.0)	38(9.0)	5(1.2)	188(44.8)	D.F.=3
Femal	156(37.1)	18(4.3)	55(13.1)	3(0.7)	232(55.2)	NS
Total	284(67.6)	35(8.3)	93(22.1)	8(1.9)	420(100.0)	
Age						$\chi^2=11.10413$
20~29	98(23.3)	8(1.9)	40(9.5)	4(1.0)	150(35.7)	D.F.=9
30~39	110(26.2)	13(3.1)	28(6.7)	4(1.0)	155(36.9)	NS
40~49	56(13.3)	9(2.1)	20(4.8)		85(20.2)	
Above 50	20(4.8)	5(1.2)	5(1.2)		30(7.1)	
Total	284(67.6)	35(8.3)	93(22.1)	8(1.9)	420(100.0)	
Dine-out expenses(won /month)						$\chi^2=24.93618$
Below 50,000	106(26.0)	6(1.5)	24(5.9)	3(0.7)	139(34.2)	D.F.=12
50,000~100,000	35(20.9)	15(3.7)	19(4.7)	3(0.7)	122(30.0)	p<0.05
100,000~150,000	54(13.3)	10(2.5)	34(8.4)	1(0.2)	99(24.3)	
150,000~200,000	13(3.2)		3(0.7)	1(0.2)	17(4.2)	
Above 200,000	19(4.7)	3(0.7)	8(2.0)		30(7.4)	
Total	277(68.1)	34(8.4)	88(21.6)	8(2.0)	407(100.0)	

NS : Not significant

- 의 조사에서 나타난 전통음식의 인식도와 비교해 본 서양음식에 대한 인식도는 기대했던 수치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 식문화의 서구화가 진전될수록 서양음식에 대한 인식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2. 서양음식에 관한 관심과 지식을 얻게 하는 정보원으로서는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을 통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31.2%), 다음으로는 책을 통하여(28.5%), 학교교육을 통하여(12.3%)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유의차가 나타났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요리·음식에 관한 책들을 더 많이 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20대·30대 연령에서는 책외에도 학교교육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4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주로 매스컴과 책을 통하여 서양음식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3. 외식할 때 주로 선택하는 식당으로는 한국식 식당, 서양식 식당, 일본식 식당, 중국식 식당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P(0.01)$)과 월식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서양식 레스토랑의 선택에 있어서는 20대, 30대 젊은 연령층에서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비하여 더 자주 찾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력별로 보면 고등학교 학력층은 서양식 레스토랑을 찾는 빈도수에 비하여 한국식 레스토랑을 찾는 빈도가 훨씬 높는데 반하여, 대학이상의 학력층에서는 비교적 서양식 레스토랑을 찾는 선택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었다.
 4. 서양식 레스토랑을 찾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1달에 1~3회'가 가장 많았고(46%정도), 다음으로 '1년에 몇번'(39%정도)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연령층(20~29세)에서 서양식 레스토랑을 찾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월식비별로 보면 월식비를 많이 쓰는 집단일수록 서양식 레스토랑을 찾는 빈도가 더욱 높은 유의차를 보였다($P(0.001)$)
 5. 양식 일품요리 전문점에 대한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치킨 전문점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28%정도), 다음으로는 커피 전문점(24%정도), 햄버거 전문점(13%정도), 피자전문점(19%정도), 스파게티 전문점(9% 정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햄버거 전문점에 대한 선택은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피자전문점에 대한 선택은 선택자(69명)들의 81.5(56명)가 월수입이 100만원 이상되는 고소득층이었다.

6. 서양식레스토랑에 있어서의 서양음식에 대한 개선점의 항목으로 응답자의 68%정도가 '한국인에 적합한 기호성 개발'에 우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서양음식의 조리사들이 한국인에게 적합한 맛을 개발해내는데 부진했던 결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한국의 양식조리사들이 한국에서 서양음식을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더욱 더 크나큰 과제로 삼아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V. 참고문헌

1. 모수미, 전미정, 백수경, 이수경 : 패스트 푸드의 외식행동에 관한 2차 실태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1, 83(1989)
2. 모수미, 김창임, 이심열, 윤은영, 이경신, 최경숙 : 패스트 푸드의 외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1, 295(1986)
3. 허호원 : 소매점 애고요인에 관한 연구 - 패스트푸드점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1985)
4. 류은순, 광동경 : 국내 패스트 푸드점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조사 - 햄버거 체인점을 중심으로 -, 한국식문화학회지, 3, 229(1989)
5. 이영남, 신민자, 김복남 : 전통음식의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1, 71(1991)
6. 한경선, 윤서석 : 한국 가정의 일상식의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 69(1987)
7. 문수재, 손경희, 이영미, 안경미 : 주한 외국인의 한국 식당의 음식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조사, 대한가정학회지, 2, 63(1986)

8. 한진숙, 신미경 : 조리식품의 기호에 대한 연구 (제1보), 한국식문화학회지, 1, 57(1988)
9. 박윤정, 조신희, 이효지 : 식품에 대한 지식이 조리방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1, 41(1990)
10. 계승희, 윤석인 :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외국 운동 선수들의 기호도 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1, 79(1988)
11. 황혜선 : 목포지역 대학생의 식생활 행동 및 영양 실태조사, 한국영양식량학회지, 1, 65(1991)
12. 안숙자 :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4, 383(1989)
13. 류은순, 곽동경 : 국내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소비자 의견조사 -면류 체인점을 중심으로-, 한국식문화학회지, 3, 237(1989)
14. 강남이, 조미숙 : 여대생과 그들 어머니의 외식 산업에 대한 식생활 태도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 45(1991)
15. 이성우, 전희정, 김상보, 허채옥, 나영아 : 食과 料理의 世界史, 東明社(1991)
16. 진양호 : 현대서양요리, 형설출판사(1991)
17. 장명숙 : 서양요리, 신광출판사(1991)

(1991년 9월 21일 수리)